

남항에 클러스터 조성... 친환경선박산업 가속도

국내 첫 전기사용 차도선 개발
친환경선박 전문인력 양성 등
새 사업 국비 추가 확보 나서

목포시가 남항에 국내 최초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를 조성, 친환경선박산업 육성을 위한 국비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목포시는 27일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조성에 본격 나섰다. 국내 최초 전기추진 차도선 개발과 친환경 대체연료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레저선박은 물론 세계 최대 규모 전기추진시스템 시험평가 인프라와 친환경선박 연구거점 및 전문인력양성체계 구축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연구개발·실증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 추가 확보에 나섰다.

이번달 초 전남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와 공동으로 신규사업을 발굴·기획해 해양수산부 담당부서를 방문하고 사업설명 및 국고 건의활동을 진행했다.

향후 신규사업을 통해 암모니아, 수

소, 배터리 등 다양한 친환경 연료의 공급 실증기반을 구축하고 기술표준을 제시함으로써 수소선박 등 친환경선박 상용화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 남항 재개발부지 내 교육연구지구의 효과적인 활용과 산업생태계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추진을 준비중에 있으며 목포시의 미래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친환경선박 산업을 고도화하고 내실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남항을 이른바 '바다의 실리콘밸리'로 만들어 침체된 지역의 조선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전환하고 친환경선박산업 중심의 성장동력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목포시의 이러한 노력은 지난 2020년 '친환경 연안선박 클러스터 구축 업무협약식'으로부터 본격화됐다.

미래 선박해양산업의 성패를 결정할 선박 온실가스 규제 대응 기술을 개발하고, 고급 기술인력을 양성해 세계수준의 친환경선박 산업 발전을 위해 전남도, 목포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가 상호협력기로 하면서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조성'에 가속도



목포시가 남항에 국내 최초 친환경 클러스터를 조성해 친환경 선박산업 육성에 나선다. 친환경클러스터 조감도. 목포시 제공

가 붙게 된 것.

해상테스트베드는 친환경 연료인 LNG에 암모니아나 수소를 혼합한 친환경 연료시스템 개발과 더불어 연료전지, 배터리 등 다양한 추진시스템의 실증을 함으로써 친환경선박의 개발 및 보급, 산업화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수소연료전지 기반에 풍력이나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추진시스템을 적용한 소형 여객선을 개발을 통해 기존

사업들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친환경 선박 산업을 목포시 주력 산업으로 선정해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선박 클러스터를 조성해 가겠다"면서 "남항을 친환경선박 관련 연구개발과 실증, 인력양성 등을 아우르는 친환경선박 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온라인 책읽기 날마다 독서 운영
목포시립도서관



목포시립도서관은 온라인 함께 읽기 프로그램 '2023 날마다 독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목포시립도서관은 2021년부터 우리 지역 독서 분위기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자 비대면 함께 읽기 프로그램 '날마다 독서'를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톡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참여하는 데 큰 부담이 없고 바쁜 일상에서도 쉽게 독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7기는 오는 4월3~28일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8기는 오는 5월1~29일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을 함께 읽을 예정이다. 7기는 오는 26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 8기는 오는 4월 17일부터 목포시통합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목포=정기찬 기자

사랑의 집수리·청소활동
동명동 해바라기여성봉사회

목포시 동명동이 지난 22일 해바라기 목포여성봉사회(회장 김월순)와 함께 저장강박증 장애인 가구에 사랑의 집수리 및 대청소 봉사 활동을 추진했다.

27일 목포시 동명동에 따르면 집안 쓰레기로 건강이 염려되는 세대에 대청소 및 주거환경개선, 물품을 지원했다.

김월순 해바라기여성봉사회장은 "더불어 잘사는 목포를 위해 봉사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시 하당동도 새마을부녀회가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3월 중 하당초등학교 후문 인근을 비롯해 인도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쓸고 주우며 줄임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김수정 새마을부녀회장은 "시간과 장소를 같이 하지 않아도 작은 실천만으로도 주변이 깨끗해져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시(시장 박홍률) 동명동이 해바라기목포여성봉사회(회장 김월순)와 함께 저장강박증 장애인 가구를 찾아가 사랑의 집수리 및 대청소 봉사 활동을 펼쳤다. 목포시 제공

"참 좋은 사랑의 밥차, 3년만에 다시 출발합니다"

목포시 '참! 좋은 사랑의 밥차'가 28일부터 본격 출발한다.

27일 목포시에 따르면 밥차는 지난 2013년 6월 운영을 시작해 14명에게 식사 및 반찬을 지원해 왔으나 지난 3년여간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배식 지원이 중지되고 반찬 배달로 대체됐다. 28일부터 점심 한끼에 자원봉사자들

이 제공한다.

밥차는 원도심의 목포 건너물 뒷갈센터 3층에서 매주 화요일 운영한다. 28일부터 상반기 14회, 하반기 11회 진행될 예정인데 7월과 8월, 12월과 2월은 운영되지 않는다.

자원봉사자 재능기부로 건강체조와 웃음치료, 국악 등의 공연과 함께 아·미용

프로그램을 진행해 건강과 웃음을 나눌 예정이다.

사랑의 밥차 운영을 맡고 있는 양경숙 목포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은 "어르신들의 식사의 장이자 소통의 공간인 사랑의 밥차가 다시 재개된 만큼 나눔과 사랑 문화를 확산하는 견인차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시,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

목포시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5년째 시행 중인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중소기업의 노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교체, 저녹스 버너 교체설치 지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총사업비 1억7600만원을 투입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사업 참여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오는 4월7일까지 목포시 기후환경과(수문로32, 4층 기후환경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목포=정기찬 기자

취약계층 가구에 절수기 지원

목포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샤워기 헤드·대변기 절수기)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수도를 절약과 이용을 위해 전남

도 보조금 지원을 받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정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지원한다. 절수기기 지원은 4500만원의 사업비로 1500여 세대에 지원될 예정이다.

예산 소모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신

분증, 절수기기 지원 신청서, 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지참해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혹은 목포시 수도과(수문로 32·트윈스타 5층)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5월부터 사용량이 많은 절수기기 중 샤워기 헤드, 수도꼭지, 대변기 절수기, 싱크대 수전 중 2가지를 선택, 지원한다.

목포=정기찬 기자

삼향동 주말농장 참가자 모집
주민자치위, 4월14일까지

목포시 삼향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도농 복합동 지역 특색을 살려 '2023 전원마을 삼향동 주말농장'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운영하는 삼향동 주말농장은 목포시 대양동 62-1번지 일원 1828㎡ 규모로 농업용 관정에서 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어 주말농장으로 최적지라는 평가다.

삼향동 주말농장은 총 100세대 농장을 분양한다. 1농장당(17㎡) 10만원씩 분양하고 있으며 분양을 받으면 4월부터 11월까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주말농장 참가 희망자는 오는 4월14일까지 삼향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전화(270-4903) 접수(선착순)하면 된다.

개장식은 오는 4월29일 주말농장부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목포=정기찬 기자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목포시, 내달 10일까지

목포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해온 6만 8411필지에 대한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달 10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일사편리 전남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시 누리집' 또는 시민원봉사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목포시 민원봉사실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민원봉사실에 방문하거나 우편, FAX 및 시 누리집의 '365 열린 창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목포=정기찬 기자